

#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  
번호

3011

곽향기 의원 (국민의힘, 동작구3)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박성연·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입니다.
-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는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.55명으로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.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으로 기준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결혼도 출산도 심지어 연애조차도 부담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.
- 결혼과 초산 연령도 상승했지만, 난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난임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겠지만, 무엇보다 출산 의지가 있는 당사자의 난임 치료를 돕고 잉태와 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
- 그런데,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

공무원은 시술 종류에 따라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, 남성 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없어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치료 동행이 불가합니다.

- 이에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,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 치료 동행을 위한 연차를 부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.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방법 협의를 위한 보호자 동반 필요성, 시술 후 배우자 홀로 이동의 어려움 등 꼭 필요한 남성 공무원의 동행을 위해 해당 연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